



주간 강선

6

주제 110(2021)
루체 제382호 월간



표지: 김성주소학교 소년단원들

자연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주소학교의 학생들.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어려있다.

본사기자 방은심



17



19



32



38



54



43



뒤표지: 금강산 만물상의 기암
본사기자 김금진

주체78(1989)년 8월 창간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ph@star-co.net.kp

편집: 리경훈

7-2180102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혁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 ······ 2

주체사상은 애국애족의 사상 ······ 10

일화

위민현신의 나날에 ······ 11

고귀한 재부 ······ 12

대담

기초가 든든한 공업, 개발창조형공업으로 ··· 12

생산공정들의 기술적진보로 ······ 14

집단적혁신의 열의드높이 ······ 16

정보봉사의 범위를 넓혀 ······ 18

은정차의 고유한 풍미를 살려 ······ 20

전망성있는 효소공장 ······ 22

대담

조선소년단의 혁사를 더듬으며 ······ 24

방문기

원아들의 요람 ······ 28

대담

치료예방사업을 앞세운다 ······ 34

탐구의 길을 맴출없이 ······ 35

장미향기 넘치는 곳 ······ 36

자연유산의 흔적을 찾아 ······ 38

조국의 품에 안겨

보물을 보는 양복을 지니고 ······ 40

초콜릿예품생산자들 ······ 42

미래가 웃는 땅 ······ 44

부정할수 없는 혁사 ······ 45

범죄의 근원은 어디에 ······ 46

사화

아이들의 마음이 흘려지지 않게 ······ 47

6월의 절기와 민속 ······ 47

리징과 그의 작품들 ······ 48

력사인물

고려2대명의 ······ 50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6) ······ 51

민족의 향기

동심을 불러오는 줄넘기놀이 ······ 52

함경북도의 혁사유적을 찾아서 (1) ······ 53

명승-삼일포 ······ 54

지명 유래

평안북도의 일부 지명들 (2) ······ 56

상식

총수를 정하는 방법 ······ 40

록화와 건강 ······ 50

조선속담(효리부동) ······ 51

유보아

효자 ······ 46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

주체 110(2021)년 4월 29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진 군방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청년들 의 특출한 혁명적열정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성과 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실 하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영웅성과 용감성을 남 김없이 떨치려는 수백만 청년들의 신념과 맹세 를 긍지높이 재천명하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 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 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 가 전체 대표들의 드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에 의하여 청년동맹사업의 혁신과 강화발전을 위한 의의있는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해 만족하 게 생각하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 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충 성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여가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온 나라 남녀청년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 낸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창 창한 미래를 바라며 애국의 대를 끊꽃이 이어가

고있는 재일조선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동포청 년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과 더불어 지난 5년간 청년운동에서도 새롭고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 니다.

나아린 소년들이 청년대오에 들어서고 어제 날의 애젊은 청년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성장하였으며 청년사업의 환경과 조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혁 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 들의 훌륭한 풍모는 계속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최악의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비약적 상승으로 이끄는 우리 당의 두리에는 항상 총직 한 청년대군이 성벽을 이루고있었으며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의 구상에 일치시키고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나가는 슬기롭고 미더운 애국 청년들이 무수하였습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 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에서 고생 과 시련을 오히려 락으로 여기며 조국의 부를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앞에 성실하며 미래 를 위해 투신하는 혁명적인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뿐입니다.

당 제8차대회가 있은 이후 온 나라 청년들이 일시에 궐기해나서고 단 몇개월사이에 수천명의 남녀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용약 탄 원진출한것은 전시에 화선에로 달려나가 적의 화점앞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것과 같은 영웅 적소행으로서 우리 청년들만이 지니고있는 승 고한 정신세계를 짐작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교대자, 후비대 를 믿음직하게 키우고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 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는 밀천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오늘의 난관을 딛고 넘어 사회주의건설의 새시대에로 이행하며 공 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음을 확신하여줍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는 청년운동의 발단과 하 나로 잇닿아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조기는 청년 운동의 전성기와 언제나 일치하였습니다.

당대회가 밝힌 진로따라 혁명의 새로운 고조 기, 격변기를 열어나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청년 운동은 마땅히 자기 발전의 일대 전환으로써 강 력한 전투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 식 사회주 의건설에서 획기적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 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련속적으 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 복을 누리는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 떠세우자고 합니다.

오늘의 형편에서 이렇듯 대담한 목표를 내세 우고 투쟁하자고 하는것은 바로 청년들을 위해 서이며 우리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 한 힘을 믿기때문입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는 청년들의것이고 청년들자신의 손으로 당겨와야 하는 성스 러운 애국위업입니다.

때문에 당은 우리 청년대군의 거대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청년운동을 사회주의건설 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하 여 이번 청년동맹 제10차대회를 특별히 중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 는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

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져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풍모가 집약되어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승리를 위하여 대를 이어 견결히 투쟁하는 애국청년으로 준비하며 청년동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떨치기를 바라는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도 실려있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었다고 하여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목표, 총적투쟁 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청년조직의 본래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애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곧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충실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진것만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함에 전 동맹적인 력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으로 만드는것, 이것이 현시기 청년동맹의 기본임무입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진군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조선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첫째로,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애국청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동맹사업을 총지향시키는것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그 위업수행의 합법칙성을 확신할 때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뚫고 우리 식 사회주

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자마다보니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여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난관이 겹쌓이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리 혁명의 다음세대를 사회주의건설의 믿을직한 주체로 준비시키는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세계관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청년시기에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확고히 간직하도록 참답게 교양하는것이야말로 청년조직들이 하여야 할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은 무엇인가를 원리적으로, 대비적으로 체득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사상의 핵인 집단주의사상을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현실과 결부시켜 깊이 심어주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청년들 스스로의 요구로 간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도달한 국력과 위상, 인민들의 존엄과 권익, 행복한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보해줄수 있는 우리 제도의 고마움, 다른 사회에서는 감히 흉내낼수도, 모방할수도 없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름답고 특유한 미덕과 미풍이 우리 청년들자신의 남다른 자랑으로, 긍지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새세대들과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것인가를 모든 청년들이 다 잘 알도록 각방으로 꾸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그 위업수행의 합법칙성을 확신할 때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뚫고 우리 식 사회주

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로와 전략전술은 우리 당정책에 집대성되어있습니다.

새것을 지향하고 열정이 불타는 청년들에게 당의 목소리로 참다운 리상과 포부를 심어주고 위훈창조에로 추동하는것이 우리 청년조직들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속에 우리 당정책의 진수를 잘 알려주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청년들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애국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신념화한 애국청년들로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도록 하는것입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간고분투의 노력으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이 땅 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전설적인 천리마시대에 청춘들이 발휘한 당에 대한 충실성과 용감성, 가지가지의 영웅적인 위훈담과 미담들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하여 모든 청년들이 전세대 청년들처럼 살고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하여 과감히 들고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자본주의사상,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요소들과의 비라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주의신념을 굳게 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둘째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모든 청년들을 영예로운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입니다.

애국열로 충만된 청년들의 기개와 풍모는 자기 세대의 역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실천과정, 단련과정에 승화되고 공고해지게 됩니다.

당 제8차대회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인도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발전지향적인 표대를 세우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구상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망목표이자 청년들의 리상이며 청년대중의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이 없이는 그 어떤 거창한 변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는것은 청춘대오의 용솟는 힘으로 혁명사업을 촉진하는데도 있지만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후비대들을 용감무쌍한 청년투사로,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전례없이 준엄한 형세속에서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떨치자!』라는 구호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애국청년의 드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에서 로동당원들이 뜨거운 불씨가 되고 선봉투사가 되면 우리 청년들은 타오르는 불길이 되고 돌격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5개년계획수행에서 청년들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동맹사업계획이 빈말로 되지 않게 청년대중의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모든 청년들이 말거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도록 부단히 고무하고 방조하여야 합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 발동되고 경쟁열풍이 고조되는 속에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는 방향에서 청년돌격대운동,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경제건설의 각 전선이 청년들의 집단적, 련

대적혁신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선 어렵고 힘든 과제를 솔선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새 기준, 새 기록을 세우고 위훈을 창조하는 로력혁신자, 청년영웅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한 장한 청년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내세워 주며 그들이 훌륭한 결심과 리상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도록 조직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요구하는 오늘의 벅찬 시대는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지칠줄 모르는 탐구정신을 지닌 청년들의 활무대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과학기술행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청년들속에서 새 기술과 발명, 창의고안이 솟아져나오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학과 기술로 선도하는 실력가, 유망한 인재들이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전선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도가 청년세대의 두뇌와 과학기술수준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담대한 배짱과 포부로 전공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장악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도록 힘있게 주동하여야 합니다.

조국보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청춘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군사복무를 최대의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도록 교양하며 일상적으로 국가방위와 불의의 사태에 준비되어있도록 부단히 각성시켜야 합니다.

무력부문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모든 청년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는 군사임무수행에서 군공과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주며 그들이 앞으로도 군사복무시절처럼 사회주의건설의 초소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게 사상정신적

성장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셋째로, 청년들을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진척시킴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고유하고 우월한 도덕과 문화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는 응당 도덕과 문화면에서도 우수하고 발전되여야 하며 여기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높이 대단히 큩니다.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문명한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발전할수 있지만 청년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는 알날이 없습니다.

당의 의도는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이 창조한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생활기풍이 청년세대들을 통하여 변색없이 후세에 이어지고 더욱 빛나게 하자는것입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속에서 고상한 도덕기풍과 풍부한 문화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을 사회주의위업의 명맥을 잇는 중대한 과업으로 간주하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과 집단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도덕관을 똑바로 심어주어 도덕생활, 도덕기풍의 기초부터 잘 닦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언행과 머리단장, 옷차림만 보고서도 그가 속해있는 청년동맹조직의 사업정형을 그대로 다 알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자기 조직의 청년들이 언어체질, 인사례절, 공중도덕과 같은 레의범절을 잘 알고 스스로 지키며 항상 외모를 단정하고 고상하게 하는 습성을 가지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돋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이 더 높이 발휘되여야 하며 덕과 정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

의 뜻이고 리상입니다.

우리 당은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고상한 공산주의미덕이 청년들의 생활로 되고 우리 시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이를다운 미풍이 청년들속에서 더 많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새 문명창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하는데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혁명적인 노래와 시, 소설과 같은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고 응변모임, 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치문화활동을 널리 조직하여 청년들이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언제나 건전하고 고상하게 생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대중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희열과 랑만, 약동하는 분위기가 차넘치도록 하는데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주동에 서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흐리게 하는 위험한 독소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입니다.

지금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일대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투쟁은 우리 청년들의 순결과 미래를 지키고 훌륭한 사회주의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또 하나의 계급투쟁, 애국투쟁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의 투쟁에 조직의 힘을 최대로 발동하고 청년대중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청년들속에 악성종양과도 같은 반동적사상문화의 해독성과 후과를 명백히 인식시켜 그와의 투쟁을 청년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은 청년들속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심리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침습할수 있는 공간들을 말끔히 장악하며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워 청년들의

운명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입니다.

전 동맹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와의 투쟁이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치렬한 대결전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백만 청년들을 총궐기시켜 청년들이 지닌 열렬한 정의감, 긍정의 힘으로 부정의 쌍, 불순의 독초를 단호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청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지만 우리 당은 이상의 3가지 과업수행에 동맹사업을 지향시켜나간다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새로운 시대적높이에 옮겨세우자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청년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 헌신하는 애국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동맹사업을 활력있게 진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동맹내부사업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며 오직 당에서 가리키는대로만 일해나가는 강한 규률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동맹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내부교양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와 여러 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5대교양을 부단히 심화시키며 동맹사업의 모든 공간들이 위력한 사상교양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교양에서 행사식, 멋따기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의식수준에 맞게 사상의 침투력, 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른것

만큼 출판보도물과 대매체편집물 등 여러가지 교양수단과 함께 발전된 정보기술수단들을 청년교양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에서 기본은 모든 청년들이 동맹규약과 규범을 잘 알고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엄격히 준수해나가는 기품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여러가지 조건과 구실을 내대면서 동맹생활총화와 정기총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공조직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지내고있는 폐단들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금 위법행위, 범죄행위에 말려드는 청년들을 보면 레외없이 조직과 리탈되어있거나 조직적통제를 싫어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조직생활유리자, 미소속자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급선무로 내세우고 한명의 청년도 조직의 지도와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혁명과업수행과 경제도덕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을 방법론을 세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총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강화하는데 전동맹강화의 담보가 있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에서는 초급단체위원장들이 제발로 걸어나가도록 품을 들여 도와주며 모범초급단체를 만들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초급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일수 있도록 상급동맹조직들에서 실정에 맞게 사업조직을 바로하고 일거리를 명백히 주며 그 집행을 강하게 장악통제하는 것입니다.

기총조직을 강화하는데서 청년핵심들의 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전 동맹적으로 시대의 전형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며 기총조직들에서도 본보기로 될만 한 청년들을 찾아 내세워주고 핵심청년들이 뒤떨어진 동맹원들을 적극 교양개

조하도록 하여 애국청년대오를 늘여나가야 합니다.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는 동맹조직의 강화발전과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똑바로 자각하고 초급조직들을 강화하며 청년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시키기 위한 사업을 빙틈없이 짜고들어야 합니다.

중앙과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기총조직들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동맹내부 사업을 할수 없게 하는 편향이 절대로 나타나면 안됩니다.

달라진 현실과 조성된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교양사업을 작전하고 주관하는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청년교양사업이 현실에 든든히 발불일수 있게 기구와 대렬을 정비하고 임무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을 비롯한 일부 지역과 단위들에서 청년동맹원수가 줄어들고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에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는것만큼 기총조직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조직생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서 실제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청년동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청년동맹강화의 기본열쇠는 청년동맹일군들의 역할제고, 수준제고입니다.

지금 청년동맹일군들속에서는 림시적관념에 사로잡혀 사업에 전심하지 않고 적당히 년한만 채우려 하는 편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청년동맹안에 존재하는 림시적관념과 무책임한 사업기풍을 일소하지 않고서는 청년사업에서의 그 어떤 혁신적변화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청년들을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 애국청년으로 키우는 정치일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그들의 오늘뿐아니라 래일 까지도 책임지는 입장에서 동맹사업에 몸을 깊이 잠그어야 합니다.

높은 정치적안목과 열정, 결파있는 전개력과 통솔력을 지니고 맑은 사업을 뼈심을 들여 모가나게 해제끼며 무슨 일이나 창발적으로 생각하고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전 동맹의 일군들이 청년들속에 깊이 들어가 당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친근한 선전자, 청년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성실한 방조자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 고상한 품성과 뜨거운 인정미를 겸비한 안팎으로 멋있는 팔방미인이 되여야 합니다.

전 동맹적으로 강습, 현실체험, 재교육 등 청년동맹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특히 시, 군청년동맹 위원장들을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청년교양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적극 떠밀어주어 청년들이 자기의 본태와 피줄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대를 끊끗이 이어가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 청년증시사상의 기본요구입니다.

혁명의 다음세대인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에 품을 들여야 전세대가 훌린 애국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되며 조국의 미래가 창창해지게 됩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워 내세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년동맹 사업과 청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부리가 청년교양문제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하며 당위원회 부서들과 일군들이 청년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의도적으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거리를 대담하게 맡겨주고 동맹조직들이 벌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해주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밀어

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향하고 군사복무와 로동현장에서 단련된 청년들로 꾸려주며 그들의 영예와 긍지감을 높여주고 전망문제도 책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창조운동을 실속있게 벌려 청년동맹조직들이 활기있게 움직이고 청년교양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는 청년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청년동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놓는 작전부서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며 각급 당위원회 근로단체부서들이 사업기풍을 일신하도록 옳게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청년교양의 주인이 되며 전사회적으로 청년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교양자, 스승이 되여 그들을 집단주의사상과 애국주의, 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하며 청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도와주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앞에는 청년동맹 제10차대회를 계기로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의 수백만 아들딸들이 혁명선렬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억세게 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 진군길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 * *

주체사상은 애국애족의 사상

사람위주의 주체사상은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조국의 융성번영을 이루려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밝혔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담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의 발전을 이루려는 과정은 곧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그 어떤 조건에서나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고수해나갈 때 개인의 자주권과 존엄도 지켜지고 민족의 운명도 성파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된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 것은 또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매 민족성원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 수 없이 련관되어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곧 매개 민족성원들의 운명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잃으면 민족성원들은 굴욕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의 혁리를 놓고 보아도 민족의 자주성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곧 각자의 운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매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루려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곧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루려는 사상이라는 것을 밝혔다.

사람들의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된다. 조국은 사람들의 삶을 꽂펴주는 어머니 품으로, 요람으로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며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해 애쓰게 된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이 민족성원들의 자주성실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운명개척과 자주성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 이를 그것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 아끼게 되며 그에 정을 불이고 그것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서 생명선을 이루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흔히 자기 고향, 자기 동포, 자기 나라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의 그 감정과 태도는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킨데로부터 표현된다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에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데로부터 자기 조국과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빛내여나가는 것이다.

본사기자

◇ 일화 ◇

위민현신의 날에

닭알삶는 러

주체 107(2018)년 10월 어느 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건설총계획도앞에서 건물들의 여러가지 배치방안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참고하여 건축미학적으로나 편리성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보장할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온천용 출구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옹출구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마실 물인데 우리가 먼저 맛보자고 하시며 제일 먼저 뜨거운 온천물이 담긴 고ぶり를 받아드시였다. 물맛을 보아하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80°C가 넘는 온천물에 손을 잡고 어보시고나서 온천물이 정말 뜨겁다고, 이 물온도면 닭알도 삶을 수 있겠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문화휴양지건설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용출구에 가서 닭알을 삶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닭알들을 온천물 속에 조심히 담그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일군에게 닭알이 몇 분이면 익을 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17분이면 된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럼 20분만 삶아보자고 하시면서 시간까지 측정해보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이곳에

닭알삶는 터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닭알삶는 터까지 만들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되어 닭알이 다 익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닭알이 잘 익었는가 알아보시고 닭알을 담을 수 있는 틀도 만들어줄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나서야 건설장을 떠나시였다.

《특별봉사》

주체 102(2013)년 10월 어느 날 아직 준공식도 하지 않은 문수물놀이장을 일군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지금껏 있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였다.

어떻게 되어 일군들이 인민들보다 먼저 봉사를 받게 되었는지.

이날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점심무렵 일군들과 함께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을 돌아보니 정말 희한하다고, 특히 파도수조를 보니 바다가의 백사장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설계도 잘하고 군인건설자들이 시공도 참 잘하였다고 거듭 평가해주시던 그이께서는

16시부터 일군들을 위한 봉사를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준공식도 하지 않은 때에 일군들이 《특별봉사》를 받게 되였다.

이날 일군들의 눈길을 특별

히 끈것은 형태도 각이하고 색깔도 다양한 물미끄럼대들이였다. 그들은 갖가지 물미끄럼대를 타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일군들은 쏜살같이 아래로 미끄러져내리다가는 순간에 우로 솟구치기도 하는 어느 물미끄럼대를 타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다 푸는 듯하였다.

그러한 때에 또다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의 그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잠시후 물미끄럼대의 이음짬에로 시선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시며 이음부위를 잘 처리해서 인민들이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렇게 이르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때 상하지 않게 이음짬들이 제대로 되였는지 잘 보라고 오늘 일군들을 먼저 태워보는 것이다. 씨리콘 빠데로 마감처리를 깨끗이 해서 인민들이 미끄럼대를 타면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

인민들이 리용할 물놀이장의 안전상태가 걱정되시여 하루에 만도 두차례나 물놀이장을 찾으시고 이렇듯 일군들의 봉사까지 조직해주신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인민들이 리용할 삭도를 먼저 타보시며 안전성을 확인해보시였다.

본사기자

고귀한 재부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조국땅에 너무도 폐사롭게 밟아왔다.

바로 그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이날을 맞으며 인민들은 그이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의 인민적 성격을 명시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전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로작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아들이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색과 로고가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이 장엄하게 벌어지던 1970년대, 1980년대에도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집대성된 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아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등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인민생활향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되였고 인민의 리상과 행복

을 꽂피우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투쟁파업으로 변함없이 명시되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문제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드림도 없으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면 하나에서 열, 백까지 그리도 세심히, 깊이 자리잡고있었다. 그것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할데 대하여》,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을 많이 건설하여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자》 등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해 알수 있다.

한평생 공장과 농촌, 막장과 어촌 등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쉬임없는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에도 인민의 리상실현에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

시였다. 《새 품종의 남새를 많이 육종하고 남새의 생산성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질좋은 여러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팔아줄데 대하여》…

그이께서는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 이민위천은 우리 당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국가활동의 출발점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의 사상이 집대성된 고전적로작들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를 전하는 가장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당과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기초가 든든한 공업, 개발창조형 공업으로

- 기계공업성 부상 김정철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파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기계공업의 현상황과 원인을 규명한데 기초한 당면한 발전방향으로 된다.

부상 : 그렇다. 현시기 나라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파업은 기계공업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는것이다. 물론 이미 우리 나라에는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토대가 구축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비해 볼 때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고 볼 수 있다.

기계공업의 기초가 약하면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전환할수 없고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공업으로서의 중임도 수행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성에서는 앞으로 수년간을 기계공업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완충기로 정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먼저 설계일군대렬을 강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종전의 기계설비들의 설계를 간다져온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토대가 구축되어있다.

기계설계력량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력량이 얼마나 그쁜한가 하는것은

기계공업의 잠재력과 발전전망을 평가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성에서는 설계일군대렬을 늘이고 그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설계일군들에 대한 원격강의 및 재교육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기계설계부문의 종합적인 자료기지를 구축하고 국가망을 통하여 열람, 보급할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있다.

기자 :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사업 다시말하여 기초를 든든히 다지면서 기계공업을 개발창조형공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새제품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 차지한다.

부상 : 지금 성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 등 각종 룬전기재들과 새 기계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본보기, 표준으로 꾸리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소재가공공정, 열처리공정들을 정비보강하며 공구를 혁신하고 기계요소들을 우리의 실정과 선진적인 기계공업발전추세에 맞게 개발생산하기 위한 단계별, 년차별 목표들을 세우고 추진해가고 있다.

진되고있다.

평양증착공구개발회사와 평양연마석공장에서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공구들을 적극 개발생산하며 특수베아링, 유성치차를 비롯한 선진적인 기계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이밖에도 채취설비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핵심적인 전자요소들의 국산화를 기본으로 내밀면서 측정설비와 전기조작기구, 자동화장치 등을 새롭게 개발생산하기 위한 단계별, 년차별 목표들을 세우고 추진해가고 있다.

기자 : 이야기를 듣고보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기간 기계공업부문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객관적조건은 의연히 불리하고 난관도 있지만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전진한다면 점령 못할 목표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상 : 옳은 말이다. 우리는 항상 기계공업발전의 속도와 수준에 따라 나라의 경제발전의 속도와 수준이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며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 개발생산해내겠다.

기자 :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 * *

생산공정들의 기술적진보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지난 기간 1만t프레스 와 대형압축기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기계들을 생산하여 조국에서 자력갱생의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소이다.

이 전통은 오늘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기업소종업원들의 일본재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기업소의 종업원들은 현행대상설비들의 기술적진보에 선차적 힘을 넣고 있다.

최근시기 기업소에서는 10m³능력의 V형압축기를 새롭게 개발한데 이어 이 압축기의 성능을 보다 개선하였다. 그 과정에 기업소종업원들은 자기 힘을 밑을 때 선진적인 그 어떤 설비들도

개발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치고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여 짧은 기간에 보다 성능이 높은 압축기를 개발할수 있게 되었다.

개선된 압축기는 지난 시기 생산하던 같은 능력의 압축기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작으면서도 자재소비는 1/5, 제작공정과 기일은 1/10밖에 안되며 진동이 거의 없고 전력소비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기업소에서는 여러가지 대형압축기도 개선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합성가스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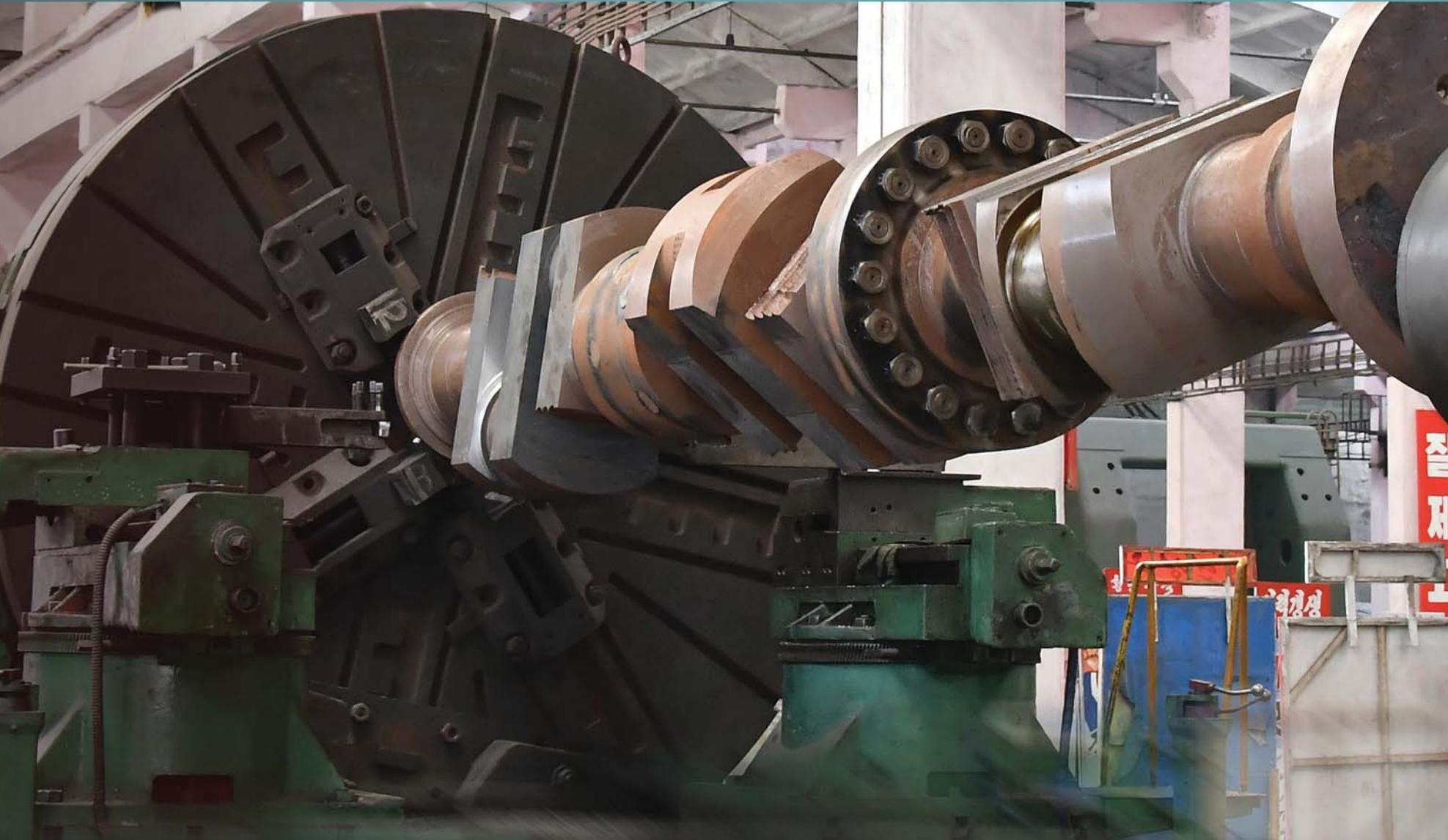
기, 혼합가스압축기 등은 설계를 새롭게 하여 제작한것으로서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제작하기 쉽고 성능도 훨씬 높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된 압축기들은 남홍파 홍남의 비료생산기지들에서 큰 익을 내고 있다.

새로운 목표를 부단히 제기하고 점령해 가는 기업소에서는 얼마전에 열쁨프를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수차바자이생산에 새 주조기술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기술적진보들을 편이어 이룩하고 있다.

기업소에서는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 생산공정들의 기술적진보를 적극 추진시켜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집단적 혁신의 열의 드높이

천리마시대라고 하면 조국인민들은 물론 해외의 동포들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 천리마운동이 세차게 벌어졌던 1950년대 후반기와 1960년대를 둘이켜본다. 그때 조국인민들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들고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그 과정에 《천리마》호 뜨락또르를 비롯한 많은 창조물들이 이룩되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도 그 시기에 《천리마》의 이름을 단 첫 무궤도전차를 만들었다. 공

장은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무궤도전차의 성능과 형태를 개조하여 수도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도 이곳에는 천리마시대의 정신과 기백이 흐르고 있다.

공장에서는 당면하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당의 경제전략대로 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빠진 공정, 필수공정, 핵심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공정전반에서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의 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혁신이다.

가공직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맡은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후에는 직장의 종업원들 모두가 공장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 모여 선진적인 기술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대중적 혁신의 열풍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탐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직장에서는 매월 부속품가공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다. 그리고 무궤도전차의 전력소비를 보다 낮추기 위한 문제, 전동기의 소음준위를 종전 보다 낮추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문제 등 공장적인 기술문제 해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열의는 전차조립직장, 전동기직장, 소재직장을 비롯하여 공장의 여러 직장들에서도 높이 발휘되고 있다. 생산현장들에는 천리마시대에 울려퍼졌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

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힘 있는 글발로 게시되어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 하던 천리마시대의 투쟁정신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위훈의 큰결음을 내짚으려는 것이 이

공장 노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정보봉사의 범위를 넓혀

수천개 단위에 대한 과학기술자료주문봉사, 자료보급건수 수십만건, 참관자와 열람자수 수백만명, 홈페이지리용자수 수천만명…

이것은 다기능화된 대중과학기술보급거점, 사회교육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이 지난 5년간 과학기술정보봉사를 하면서 종합한 통계자료의 일부이다.

자료가 보여주듯이 과학기술전당은 사람들에게 광명한 미래에로 가는 혈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이 자기의 실체를 뚜렷이 하였다.

과학기술전당 총장 최정호는 『과학기술이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되는 전략자산, 발전동력으로 되고있는 오늘 과학기술정보와 지식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더욱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우리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전당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수 있는 운영전략을 세우고 자료와 기술, 서비스들을 부단히 개신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고 있다.

자료기지처의 연구사들은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 종합정보봉사체계에 지능화된 정보봉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첨단서비스들의 연구제작에도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특히 허영도박사를 비롯한 이곳 연구사들은 100만개 이상의 질문 및 대답자료들을 포함한 지능형문답체계의 개발과 최신인공지능기술들을 이용한 년간 수백만건 능력의 자료기지구축공정 관리체계를 연구하여 자료기지구축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고 전당의 자료기지 규



모를 수억건수준으로 늘일수 있게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처와 과학기술 양성처의 연구사들과 지도교원들도 정보봉사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신하고 전자열람, 원격강의, 학술문답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봉사를 활성화하여 열람자들의 수를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의 연구사들은 매 과학기술전시관들의 전시물들을 가동형, 조작형전시물들

로 변환시켜 과학기술보급과 정보봉사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파노라마기술을 이용한 가상참관체계가 연구도입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새 기술이 창안도입되어 정보봉사와 지식습득의 실효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전당을 통하여 전국 각지의 과학기술보급실들에 수요에 따른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이 물이 흐르듯이 보급될수

있는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체계와 보장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있다.

현재 1만여개에 달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망체계에 가입되어 과학기술봉사, 기술도록봉사, 성과와 경험봉사, 기술 및 제품봉사 등을 받고있다.

과학기술전당에서 보내주는 정보와 지식자원은 많은 단위들의 새 제품개발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펴밀고있으며 옳바른 경영 전략, 기업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어느때나 그리고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임의의 시간에 과학기술정보봉사를 받을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은 온 나라를 보다 광명한 미래에로 부르며 봉사령역을 더욱 넓혀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은정차의 고유한 품미를 살려

차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데 맞게 조국에서는 차재배면적을 늘리고 차잎생산과 가공기술도 발전시키고 있다.

황해남도 강령군, 강원도 고성군과 같이 바다를 끼는 조국의 중부지역에서 풍토순화시켜 재배한 차나무에서 수확하여 가공한 룹차, 홍차, 철관음

차를 일명 은정차라고 부른다.

최근 은정차애호가들은 뜨거운 물에 차잎을 우려먹던 전통적방식과 함께 고체즉석차, 액체차음료도 즐겨마시고 있다.

생산지에서 가공된 차잎으로 액체차음료를 생산하는 은정차음료공장이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

리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연건평 수천 m²인 공장에는 물정제공정, 차우림 및 조제공정, 포장공정 등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 있다.

부원 정성희는 《예로부터 차는 차잎이 좋아야 하고 차잎을 우려내는 수질이 좋아야 하며 차물을 담는 차잔이 그에 알맞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공장에서 차음료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은정차잎은 카테킨(폴리페놀), 카페인, 탄닌, 사포닌 등 건강에 좋은 수백 가지의 유효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기와 맛이 독특하다.

이러한 차잎을 우려내는 수질 또한 이를 데 없이 좋다.

지배인 렘성희의 말에 의하면 수질이 좋은 곳을 택하여 공장을 세웠다고 한다.

공장의 생산자들은 룹차, 홍차, 철관음차의 맛과 향기, 색갈에서 고유한 풍미를 살리고 보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공장에서는 고품질, 다종화, 다양화에로 나가고 있는 차음료생산의 발전추세에 맞게 앞으로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인삼차, 오미자차, 은행나무잎차, 감나무잎차와 같은 음료들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정차음료는 제품의 마개를 개봉하여 즉석에서 랭차로 마실 수도 있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일정한 온도로 덥혀 마실 수도 있다.

공장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액체차음료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그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전망성 있는 효소공장

세계적으로 효소공업은 생물산업의 기둥공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것은 효소의 경제적 가치로 하여 응용분야가 대단히 넓으며 적은 투자로 많은 리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효소에 대한 수요는 어느 분야나 할 것 없이 높다.

조국에서 그 수요를 적지 않게 보장하는 공장이 바로 락랑효소공장이다.

평양의 통일거리에 위치한 공장은 효소생산의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축산업과 임업, 제약공업, 방직, 식료, 가죽이김, 세척제공업부문에 쓰이고 있는 공장의 효소제품들은 가격이 낮고 품질이 담보되어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섬유소분해효소, 단백분해효소, 농마당화효소, 농마액화효소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용효소들과 그 응용제품들은 10여 가지가 넘는다.

공장은 원료를 국산화하여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은 생산공정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꾸리였다.

지배인 박사 권영진은 『만약 다른 나라의 생산과정을 본떴다면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오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강냉이짚과 날알부산물 등 국내의 흔한 원료로 공장에서는 한해에 수백t의 효소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원료의 국산화실현과 새 제품개발은 공장의 강력한 연구집단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공장의 효소기술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설

계화립하였으며 품질개선, 효소의 정제와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시약의 개발, 효소를 리용한 여러 가지 효소제연구 및 개발 등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활동과정에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경영전략이다.

공장은 앞으로 자체의 두뇌진을 강화하여 균육종기술 발전에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려 하고 있으며 발전된 나라들 파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소년단의 혁사를 더듬으며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부장 엄광혁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조선소년단창립 75돐을 맞으며 본사기자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부장 엄광혁과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의 축복속에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일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체 35(1946)년 6월 6일에 창립된 조선소년단은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주

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학생소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인 소년운동의 시원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결성된 새날소년동맹(1926. 12. 15.)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동단을 거쳐 조국해방후 조선소년단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조선소년운동의 75년의 혁사를 더듬어보면 조선소년단기와

더불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을 바친 소년단원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부장: 예.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구인민들을 구원하고 12살 나이에 생을 마친 김기송동지와 조직의 비밀을 지켜 9살 나이에 최후를 마친 아동단원 김금순을 비롯한 항일아동단원들의 영웅적위훈과 정신세계는 조선소년단원들의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단원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수많은 위훈담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적강점지역에 소년근위대와 소년빨찌산을 끝고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학교를 지켜 용감히 싸웠습니다.

항시적인 위협이 도사리는 적구에서 그들은 통신련락을 수행하고 적정을 탐지하였으며 령활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적들에게 죽음을 주었습니다.

서강렬, 리현수소년들은 침략자들의 고문과 총구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조옥봉은 최후를 마치는 순간까지 피묻은 소년단휘장을 가슴에 간직하였으며 괴덕십소녀는 총구앞에서도 만세를 소리높이 웨쳐 적들을 전률케 하였습니다.

이들의 위훈은 오늘도 모교와 함께 빛나고있습니다.

기자: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소년》호 무장장비들도 태여나지 않았습니까.

소년단원들은 군기힌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많은 《소년》호땅크와 비행기, 함선들을 전선에 보내였고 수많은 조국보위기금도 마련하여 전승을 안아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때 함경북도의 소년단원들이 여러가지 좋은 일을 찾아하여 마련한 기금만 해도 115만여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부부장: 그렇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습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는 한편 그들은 여려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소년》호뜨락또르와 굴착기, 불도젤, 화물자동차, 《정주소년》호전기기관차를 사회주의건설장에 보내주었습니다.

조국의 푸른 숲들에도 소년단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전국도처에 소년단림을 조성하고 해마다 수많은 나무들을 심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도 수백정보의 소년단림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전국의 소년단원들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기자: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75년의 로정에는 후대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부장: 《미래를 사랑하라!》,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 오신 혁명신조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창립당시 조선소년단회장과 기발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



소년단입단식에 참여한 학생소년들



학생소년들이 마련한 《소년》호뜨락또르 증정식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

의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조국에서는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 력사가 시작되고 학생소년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는 것이 국가의 영원한 시책으로 되였으며 경치 좋은 곳들에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회관들이 일떠서 학생소년들의 행복

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소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그이께서는 소년단원들을 위해 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것이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지금도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행사의 날에 새겨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소년단원들과 나란히 앉으시여 음악회도 관람하시고 무려 20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2만여 명의 대표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새 세대들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관심과 배려는 더욱 커만 가고있습니다.

기자: 하기에 우리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품어주는 고마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장: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앞날의 발명가, 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에 다양한 주제의 과학환상문예작품들과 착상이 기발하고 환상이 풍부한 모형과 도형들을 내놓으면서 지식의 탑을 더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단생활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은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웃사람들을 존경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파외교육교양기지들에서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뛰여난 재능을 가진 소년들이 세계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있으며 한해에 만도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원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수상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이런 수백만의 소년단원들이 있어 조국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합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주체 108(2019)년 이전시기 촬영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우고 있는 학생소년들



렬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키워가는 학생소년들

원아들의 요람



흔히 사람들은 고아라고 하면 의지가지 할 데 없는 불쌍한 아이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있는 조국에서는 부모잃은 아이들도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관심 속에 걱정 없이 살고 있다.

평양애육원의 원아들만 보더라도 항상 밝게 웃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평양애육원 원장 공훈교원 최송란은 《애육원은 원아들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교양원들은 그들의 성장의 인도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

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동무를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하는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담하고 특색있게 설계된 평양애육원은 그야말로 모든 생활환경과 조건이 원아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되게 꾸려져있다. 특히 애육원의 벽들에 그려진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만화그림들, 교양실, 지능놀이실, 물놀이장 등은 원아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답게 자리잡고있다.

그중에서도 미끄럼대, 롱구대, 아동자전거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희기구들과 놀이감들이 많은 놀이장은 원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자연관찰실과 지능놀이실에서도 원아들은 배움의 나래를 펼치며 소중한 꿈을 자라운다. 수십종의 동식물들과 각종 지능형 놀이감들이 있는 이곳들은 자연에 대한 생동한 표상과 지능계발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는 것으로 하여 원아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특색있는 파외교양시간도 원아들의 정서생활을 보다 유쾌하게 하여주고 있다. 승벽심을 키워주는 달리기와 공차기,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하면서 원아들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야외에 있는 소형전기유희렬차에 몸을 싣고 래일을 그려보기도 한다.

이뿐이 아니다.

애육원에서 원아들은 소질에 따라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꽂피우기도 한다. 타악기와 목금을 능숙하게 치는 김원남과 김영선, 민요를 잘 부르는 최천금, 최련주를 비롯한 원아들 모두가 재간동이들로 자라나고 있다.

지난 기간 평양애육원 원아들은 해마다 전

행하는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무대에서 여러차례 우승하였다. 그리고 많은 원아들 속에서 창작된 글작품과 서예작품들은 전국애육원원아들의 재간동이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인가 평양애육원을 참관한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올리베르 요니슈카이트는 《이곳을 돌아보면서 나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여기야 말로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생의 첫발을 뗄수 있도록 훌륭한 조건이 보장된 곳이다. 이것은 조선이 어린이들을 위한 나라라는것을 보여준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정든 집과 더불어 한점의 그늘도 없이 생활하는 원아들을 보느라면 누구나 달리는 느낄 수 없는 심정이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원아들을 볼 때마다 교양원들은 《나라에서 마련하여준 따뜻한 집에서 아빠정, 엄마정을 기울여 그들 모두의 미래를 가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궁지롭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치료예방사업을 앞세운다

- 보건성 부국장 리옥향이 본사기자와 나눈 대담 -

로 생활할수 있게 하는 사회정치적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화국이 창건된 직후부터 인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미리막거나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염병은 군사력도 생산력도 약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는 나라는 문명정도가 높다고 할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 천연두, 재귀열, 지스토마, 일본뇌염과 같은 감염률이 높고 고치기 힘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치료예방활동이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도높이 진행되었다.

현시대에 들어와 사람들속에서 심장혈관통질병, 암성질병, 물질대사질병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게 예방원식의료봉사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방원식의료봉사는 중앙파도, 시, 군들에 각급 전문예방원들과 예방파들로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를 이루고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면서 일단 발생된 질병들의 조기적발과 등록, 체계적인 판찰과 적극적인 치료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자: 질병을 예방하는것은 인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부국장: 그렇다. 우리 나라에서 예방문제는 질병을 막아내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사회적위생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들을 온갖 질병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모두가 건강한 몸으

로 생활할수 있게 하는 사회정치적 문제이다. 안파종합병원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새로 일떠서고 도처의 크고작은 병원들이 개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품생산에서도 일련의 성과가 이루어져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체질화한 각지 의료일군들은 높은 실력으로 여러가지 난치병치료에서도 전진을 이루하고 있다.

기자: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의 연단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시였다.

부국장: 정말이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첫 자리에 놓고 치료예방사업을 앞세우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받으셔야 할분이시다.

그이께서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실 때 온 나라 인민은 감사의 눈물만 흘리였다.

지금 우리 보건부문에서는 보건이 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 영상의 주요징표라는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여러가지 전염성질병들을 결정적으로 없애는 문제를 비롯하여 치료예방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판철을 위한 보건부문 일군들의 치료예방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루어기를 기대한다.

* * *

탐구의 길을 멈춤없이

함흥화학공업대학 화학공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장혜영은 조국에 혼한 원료를 이용하여 물고기배합먹이첨가제를 연구완성한데 이어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배합먹이종합첨가제를 개발한 여성과학자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어느날이였다.

당시 그는 양어부문의 일군으로부터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한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물고기먹이첨가제개발에 대해 심려하시였다는것이였다.

그날밤 그는 생물화학공학을 전공한 교원으로서 오는 가책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으며 다른아닌 자기가 이 연구를 완성 할 결심도 다지게 되였다.

스스로 선택한 연구과제는 대학교단에서 평범하게 흘러가던 그의 인생길을 멀고 험한 과학탐구의 초행길로 바꾸어놓았다.

그는 물고기먹이첨가제를 나라에 혼한 원료원천을 이용하여 만들어낼 목표를 세우고 사색을 거듭하였다. 낮에는 원료원천을 찾아 산발을 오르내리고 강기슭과 바다가 등도 메주밟듯 하였다. 밤에는 얻어낸 사료들에 대한 조성분석과 효능검토로 많은 시간을 바쳤다.

때로 여러차례의 적용시험과정에 물고기들이 몽땅 죽어버리여 주저앉은적도 있었다. 그 과정은 과학에 대한 애착, 의무감만으로는 넘기 힘든 고비들이였다. 그러나 그는 양어발전에서 먹이문제를 따라세우는 문제의 중요성으로부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 1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분투하였다. 하여 그는 새끼단계와 비육단계에 있는 물고기의 사름률과 증체률을 높일수 있는 국산화된 먹이첨가제를 연구완성하게 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물고기배합먹이종합첨가제연구에 또다시 달라붙었다.

물고기먹이첨가제의 효능을 보다 개선해가려는 그의 열의는 식을줄 몰랐다. 그런 그를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그는 그들과 힘을 합쳐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뛰여넘어 종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생물공학적방법을 리용하여 물고기먹이의 단백



질 함량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물고기먹이첨가제생산에서 한단계 도약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련이어 해결한 그는 마침내 증체률과 사름률, 면역기능제고 등에서 효능이 높은 물고기배합먹이종합첨가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속에 출기차게 진행되어온 그의 연구사업정형을 여러차례 료해하시고 장군님의 유훈대로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지향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심속에 탐구의 20여년을 걸어온 그는 오늘 바다양어를 위한 먹이첨가제연구에 힘을 넣고있다.

그는 《10년, 20년이 걸릴지 알수 없지만 나는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장미 향기 넘치는 곳



장미는 그 모양이 아름답고 향기가 독특하여 관상적 가치가 대단히 클뿐 아니라 사람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에 자리잡은 류경장미원이 바로 장미를 리용하여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류경장미원에서는 그 어디서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미꽃을 감상하며 그윽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부원 박희숙의 말에 의하면 이곳을 찾는 손님들 속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장미목욕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한번 장미목욕을 하고 난 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즘 피로가 쌓여 피부가 건조하고 살결이 어두워졌었는데 장미꽃을 띠운 욕조에 10분정도 몸을 담그고 있었더니 피부가 한결 탄력 있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장미목욕을 끝내고 따끈하고 향기로운 장미꽃차를 마실 때의 상쾌한 기분은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장미목욕은 욕조에 장미향보습거품제를 넣고 거품을 충분히 일군 다음 몸을 담그고 하기도 한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따끈한 장미꽃차를 마신다.

장미꽃차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생긴 검버섯과 주름이 없어

지게 할뿐 아니라 여러 질병치료에도 특효가 있다. 특히 비만증 치료에 매우 좋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장미꽃을 증류시킬 때 나오는 장미수는 미용과 미안에 널리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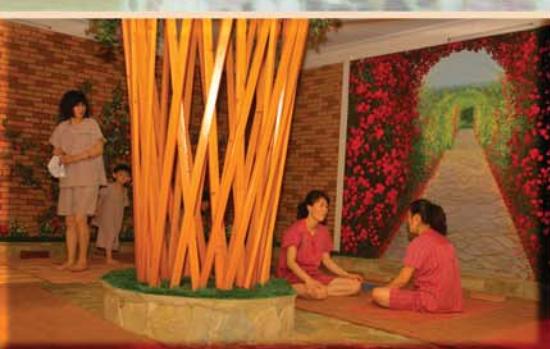
장미수는 장미꽃속의 정유와 단백질, 유질, 펩티드를 비롯한 다종의 수용성유효성분들로 하여 보습미안제, 머리영양제로 그저 그만이다.

미용실에서는 봉사에서 장미수를 리용함으로써 영양제를 쓰던 때보다 머리칼이 더 부드럽고 광택이 유지되며 향기가 지속되게 하고 있다.

치료미안실에서 우리와 만난 보란봉구역화초사업소 로동자 김설미는 《나는 직업상특성으로 하여 장미를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장미가 관상용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미를 가꾸는데도 그 리용가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직접 봉사를 받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며 이곳에 더 자주 오겠다는 것이였다.

경리 방정철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년 간의 봉사에서 경험을 얻고 장미리용을 더 과학화해 나가는데 경영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자연유산의 흔적을 찾아

지난 2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에서 중생대의 보기 드문 새화석이 발굴되어 학계의 초점을 모았다.

중생대 백악기 하세층에 속하는 신의주주층의 3번층(약 1억 3 000만년전)에서 발굴된 새화석은 새의 대가리뼈, 발가락뼈, 날개의 1차날깃 11개와 작은 깃가지들까지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새화석이 국보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하였다.

한것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0여개의 나라들에서 적지 않은 새화석이 발굴되었지만 잘 보존된 깃을 가진 새화석이 발굴된 나라는 몇개밖에 안되는것은 물론 새화석의 깃가지들의 구조가 선명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었기때문이였다.

백토동에서 나온 희귀한 이 새화석은 백토새로 명명되었으며 그후 유원지총국 자연박물관에 전시되게 되었다.

이를 발굴고증한 학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고생물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이다.

지나간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와 흔적인 화석을 발굴하여 지구상에서 지각의 발전력사와 생물의 출현, 그 진화발전력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들은 묵묵히 수년세월을 바쳐가고 있다.

이 나날 주체78(1989)년 황해북도 평산군에서 1억 8 000만년전에 살던 공룡발자리화석을 발굴하

였고 1990년대초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에서 조선시조새화석을 발굴하여 우리 나라가 인류의 발상지일뿐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로 된다는 학술적 고증을 하게 되었다.

주체90(2001)년에는 황해북도 황주군과 연tan군의 여러 지역을 살살이 훑으면서 고심어린 연구분석과 관찰을 하여 여러 동식물거시화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6억 2 000만년전의 고생물화석을 발굴고증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유원지총국 자연박물관 고생물관과 백두산종합박물관 고생물관의 학술전렬전시를 맡아하였으며 혜산지구 무연탄탐사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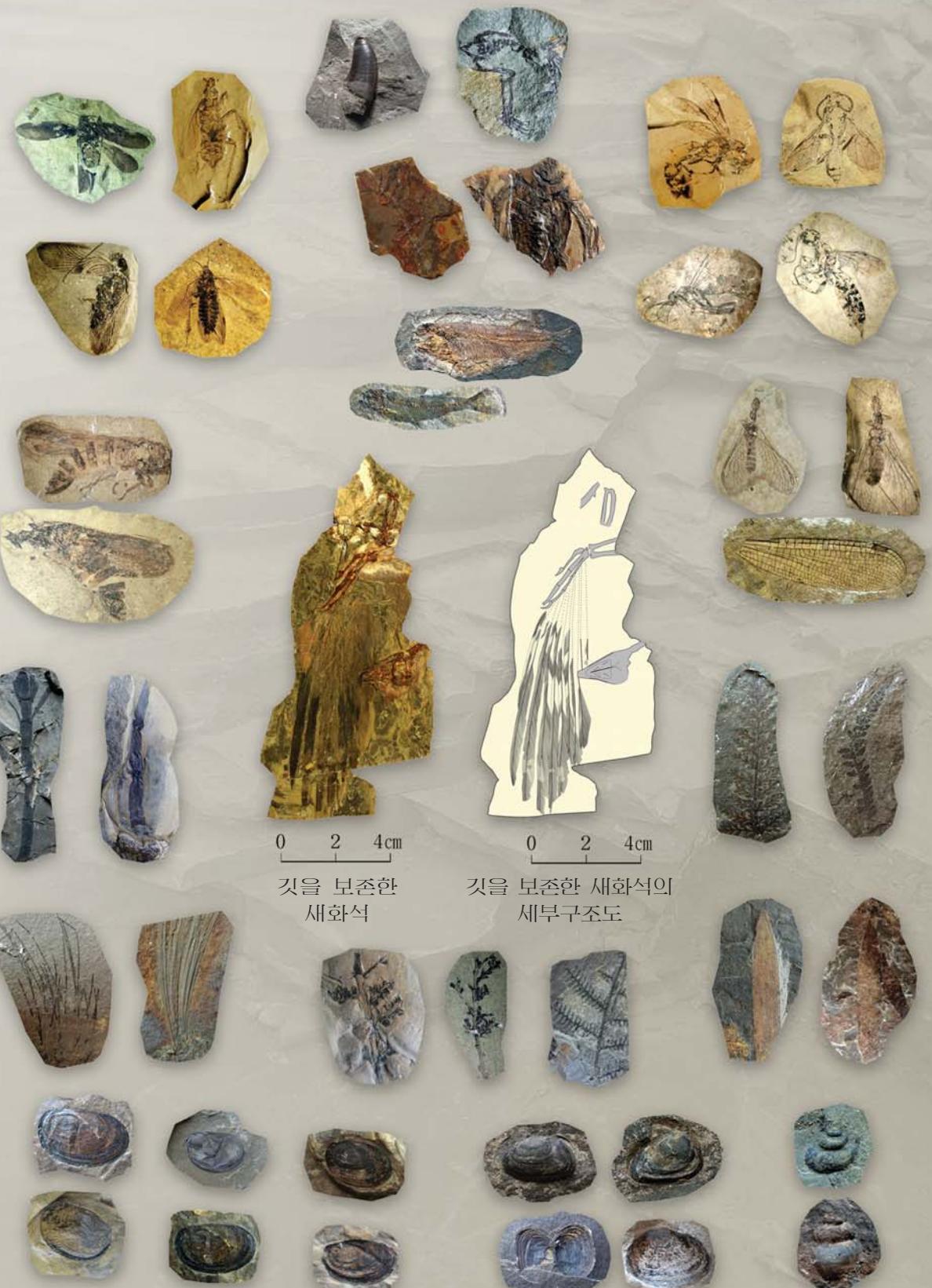
강좌에서는 주체103(2014)년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시 백토동화석보호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며 중생대의 새화석과 함께 공룡이발화석, 원시포유동물화석, 물고기화석 등을 발굴하였으며 신의주생물군도 새로 설정하였다.

백토동화석보호구와 관련한 7건의 논문들은 국제학술토론회논문집들에 발표되었다.

강좌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월칠국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월과 함께 묻혀버린 자연유산들을 풍부히 하는 우리의 사업은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사기자 엄향십



보물을 보는 안목을 지니고



김성호

사리원지질대학 지질탐사학부 광물탐사학강좌 교원 김성호는 평범한 교육자이다.

강의와 강의준비만 하자고 해도 늘 바쁜 그였지만 과학연구사업에 언제나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그는 학생들과 함께 황해북도안의 여러 지역에서 실습하는 과정에 한가지 중요한 착상을 하게 되였다.

(도내 지방산업공장들의 중주파유도로에 리용되는 내화벽돌 대신 우리 황해북도에 흔한 광물 자원으로 새로운 내화물을 만들어 쓴다면…)

착상의 실마리는 잡혔지만 아직은 묘연하였다.

필요한것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였다. 지난 20여년간이나 지질탐사부문의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교원으로 사업한 경험도 있고 또 황해북도는 물론 전국의 광물의 분포에 대해서도 손금보듯이 알고있던 그는 해당한 광물표본들을 놓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낮에는 교육사업으로, 밤에는 연구사업으로 날과 달들이 훌렸다. 헤가 바뀌면서 그에게 겹쳐드는 정신육체적부담은 점점 커갔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것을 이겨냈다. 그의 연구사업을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도와나섰다.

그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 로의

수명을 2배로 늘이고 원가는 절반으로 줄일수 있는 새로운 내화물을 연구완성하였다. 그들이 연구완성한 내화물은 내화벽돌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혼합물을 타입하듯이 로벽체를 완성함으로써 빠른 시일안에 쇠물을 끓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리원강철공장 중주파유도로에 도입되었다.

김성호는 새 내화물을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은 그 어느것이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될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는 보물을 찾아내는 심정을 안고 모자이크알에 대한 연구사업에도 몸을 잠그었다.

여러가지 색갈의 모자이크알을 생산하자면 광물질원료를 먼저 찾아내야 하였다. 나라에 보탬을 줄수 있는 일이라면 크든작든 자기의 열정을 아낌없이 다바친 그는 단 몇 달만에 성공의 기쁨을 맛보았다.

돌이켜보면 일본 오사카 이구노구에서 태여난 그는 100날도 되기 전에 부모들과 함께 주체49(1960)년에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사업을 하였던 그의 아버지는 귀국 후 사리원제1사범대학(당시)에

서 교편을 잡았다.

김성호는 남다른 애국심을 지니고 교수활동을 진행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였다. 하기에 그는 조국보위를 공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군사복무를 하였으며 제대후 사리원지질대학과정을 마치고 아버지처럼 대학교단에 섰다.

그는 애국심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진리를 말없이 가르쳐준 아버지의 한생을 마음의 거울로 삼고 늘 자신을 비추어보며 조국의 대지에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였다.

교원들과 함께 새 교수내용을 토의한다. (오른쪽 두번째)



상식

총수를 정하는 방법

총수란 같은 혈족안의 항렬과 대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멀고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를 말한다.

총수는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관계에서 시작한다. 따라

서 부부사이에는 총수가 없고 부모와 자녀들사이에 1촌으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총수를 정하려는 사람

이 어느 조상에서 갈라졌는가를 따져보았다. 그에 따라 친형제자매는 2촌, 형제자매의 자손들과 부모의 형제자매는 3촌, 그들의 자손들과는 4촌으로 정하였다.

외견, 처견, 시견의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총수앞에 어머니, 안해, 남편을 기준으로 《외》, 《처》,

《시》자를 덧붙였다.

총수표시의 특징은 형제자매별의 친척 즉 같은 항렬은 4촌, 6촌, 8촌과 같이 짹수로 나가며 조카별의 모든 친척 즉 자기의 웃항렬이나 아래항렬은 3촌, 5촌, 7촌과 같이 홀수로 나가는 것이다.

* * *

초물공예품 생산자들

신의주시초물생산협동조합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초물제품생산기지이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수많은 문화적재부들을 창조하여왔다.

여러가지 식물의 뿌리와 줄기, 껍질, 잎사귀들을 기본재료로 하여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는 초물공예 역시 그 대표적인 문화적재부들중의 하나이다.

초물공예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주위에 있는 식물자원을 개발하여 생활에 쓸모있게 리용하는 과정에 발생한것으로서 경제문화생활파의 밀접한 관련판속에서 발전풍부화되어왔다.

더우기 어디에 가나 재료원천이 풍부하고 특별한 설비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교적 품을 적게 들이고 손쉽게 만들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종류와 형태 역시 다양하게 발전하여왔다.

지금으로부터 63년전인 주체47(1958)년 8월에 창립된 신의주시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는 자기지방에 흔한 쌀리와 벼들, 왕골, 강냉이오사리를 기본재료로 하여 초물제품들을 생산해오고있다.

초물공예품은 엮기, 짜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작되고있다.

조합에서는 둋자리, 방석, 명석을 비롯한 깔개류와 구력, 망태를 비롯한 가방류, 모자, 부채등 생활기호품들, 바구니, 의자, 문발 등 기물을 생산하고있다.

그중 왕골로 만든 꽃돗자리는 섬세하고 우아하여 실용공예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장식용공예품으로도 널리 리용되고있다.

온돌방에 앉아 생활하는 조선인민의 관습에 맞게 치밀하고 고르롭게 엮으면서도 꽃과 새, 글자, 무늬들을 아름답게 새겨넣은 둋자리는 조선의 특산물이기도 하다.

최근 이 조합에서는 강냉이오사리로 여러가지 종류의 초물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구력, 배낭, 방신, 해수욕깔판과 배개, 방석, 문발 등의 제품들은 환경보호와 건강관리에 좋은 것으로 하여 호평이 높다.

특히 강냉이오사리죽방석은 독특한 향기로 하여 좋은 감촉을 줄뿐아니라 관절염 등에 아주 좋으며 살균, 소독작용, 보온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구매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강냉이오사리방신 역시 발땀을 흡수하여 냄새

를 없애 줄뿐아니라 발안마도 해주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조합에서는 강냉이오사리의 좋은 점을 리용하여 제품의 가지수를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조합에서 왕골로 만든 모자와 부채, 침대깔판, 배개, 의자의 유익성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조선의 그 어느 지방에서나 흔히 심고 재배할 수 있는 왕골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이 제품들은 머리아픔, 혈액순환장애, 고혈압, 불면증,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조합에서는 초물제품의 조형화, 예술화실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미 주체99(2010)년 중국의 상해에서 진행된 세계박람회에 1 300여개의 초물제품을 출품하여 인기를 끌었던 좋은 경험을 적극 살리면서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분발하고있다.

염색법, 표백법, 색도안, 엮는 방법 등을 새롭게 연구도입하고있다. 나노처리, 산화수처리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그 어떤 기후조건과 습도에 관계없이 초물제품의 변질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들이 자기 지방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만든 쓸모있고 맵시있는 초물공예품들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락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염성희
사진 본사기자 라평렬



초물제품들의 일부



미래가 웃는 땅

서방의 언론들은 매일같이 북에 대해 나쁜 보도만을 날리고 있다. 《굶주림》이니, 《공포》니, 《인권불모지》니…

그런 선전을 밥먹듯이 들어온 내가 북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받은 소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보고 듣고 느낀것 모두가 충격적이였고 감동적인것이였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북의 사랑과 배려를 직접 체험하면서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옥류아동병원, 경상유치원, 평양아동백화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는 곳마다에 인민의 꿈과리상이 실현되고 희한하고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고있는 북의 실상을 그대로 적어본다.

행복의 절정에 올라

나는 평양에서 국제아동절을 맞는 행운을 지녔다.

늘그막에 그래도 세월을 수십년 거슬리 올라 잠시나마 동심에 잠겨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6월 1일! 내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을 특별히 보고싶은 마음이 부쩍 동한것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멋쟁이 궁전으로 일며 선 건물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어느 해인가 이곳 원아들을 찾아주신 뜻깊은 날이기 때문이였다.

나는 서방에서 오래 살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복지원》 등을 많이 보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의 눈에 비낀것은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냘픈 모습이였다.

내가 사는 주택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고아원》에서는 철없는 아이들이 학대를 참을 수 없어 울타리너머로 때없이 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나는 그 무슨 신선들의 동산을 찾은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나같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환하고 잘 생긴 원아들, 발랄하고 생기에 넘친 그들이 아름다운 색동저고리를 떨쳐 입고 자기들의 모습을 뽐내기라도 하듯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막 달려가

가슴에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나 평양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아버지!》하고 부르며 저마다 안겨드는 원아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

다고 한다. 2015년 양력 설아침에는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이곳 원아들을 찾으시여 새해를 맞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원아들이 목메여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도 정겨이 들어주시였다고 한다.

평양의 육아원과 애육원은 참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새로운 대명사처럼 여겨진다.

나는 육아원의 실내놀이장에 펼쳐진 희한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새파래로운 문명을 제일선 참으로 누려가는 원아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행복의 절정에 올라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저 원아들을 보고 누가 부모없는 고아들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그들에게는 사랑과 인덕으로 누구나 따뜻이 품어안아주는 고마운 집(제도)이 있고 해빛보다 더 따사로운 사랑을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

자기들의 새 집에 들어설 때 준공테프를 끊고 당당히 들어선 아이들, 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고 따르며 앞으로 커서 나라의 훌륭한 역군들이 될터이니 조선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재미동포 박윤자

부정할수 없는 역사

조선에서 일제의 군사적 강점을 반대하는 대중적 반일투쟁인 6.10만세시위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95년이 된다.

1905년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1919년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인민의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명색상으로나마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었으나 《고등경찰제도》를 수립하여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1926년 4월 25일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의 죽음은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쌍이고 쌍였던 망국의 설움과 울분을 크게 전드려놓았다.

인민들은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하였으며 수십만명이 경성(서울)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이러한 격앙된 반일기세에 편승하여 순종의 장례식 날인 6월 10일에 전국적인 반일시위투쟁을 벌릴 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추진시켰다.

그러나 지도부에 끼여든 종파분자들의 망동으로 비밀리에 진척되던 투쟁준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일제는 이것을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의 좋은 구실로 여기였다.

일제는 황급히 군대와 경찰을 총동원하여 경성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인천에 정박하고 있던 4척의 순양함해병들을 상륙시켜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에 걸어 6.10만세시위투쟁준비위원회의 성원들을 비롯하여 《요시찰인》 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6월 6일과 7일 이를동안에 경성에서만도 200여명을 체포투옥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조선인민의 반일의지를 꺾을수 없었으며 마침내 6월 10일 경성에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일제는 순종의 상여가 지나갈 길을 따라 매 전선주마다에 5~6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례포》용이란 간판밑에 대포, 기관총을 설치하여 군중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사무친 원한과 민족적 울분을 안은 군중들은 상여가 창덕궁을 떠나자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려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시위대렬은 삽시에 확대되었다.

이날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해 경성에서는 시위군중 160여명이 부상당하고 200여명이 체포구금되였으며 투쟁은 더 전개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일제의 죄악은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인적, 물적피해를 준 나라이다.

일제는 군사적 강점시기 무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연행하여 전쟁대포밥으로,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또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

《대동아공영권》 실현에 광분하던 일제가 침략전쟁에 필요한 물적자원의 많은 몫을 조선에서 총당하였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난날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그를 한사코 부정, 외곡하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과거범죄가 지워질 수 없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조선인민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범죄의 근원은 어디에

한 나라의 발전면모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의 정신도덕적 높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직접적인 담당자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품모는 과연 어떠한가.

일본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로 되고 있다.

최근에 만도 도쿄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범죄자가 남성의 배와 잔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살인 범죄를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원한이나 변태적 요구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 일개인의 리익에 저촉된다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든, 제가 낳은 자식이든 관계 없다는 식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하기에 일본에서는 피를 나눈 혈육들끼리도 잔인하게 죽일내기를 하는끔찍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에서 한 남성이 년로한 어머니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그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시체도 발견되었는데 범죄자는 자기가 살해하였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하였다

고 한다. 이외에도 오까야마현의 쓰야마시에서는 56살 난 남성이 자기 형의 잔등과 가슴 등을 치칼로 찔려 살해하였다. 조사과정에 범죄자는 『치칼로 몇번이나 찔렸다.』고 빼쳤이 뇌까렸다고 한다.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 이 가정이다. 혈육들 사이에 존경과 신뢰, 따뜻한 사랑과 정이 흐르는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세포이며 사회의 화목은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정은 화목의 화원이 아니라 범죄가 살판치는 곳으로 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사랑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어머니들까지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마구 죽이는 극악한 범죄자로 되고 있다.

오끼나와현에서 39살 난녀성이 두 아들의 목을 졸라죽인 사실, 사이다마현에서 부부가 태여난지 3개월밖에 안되는 딸애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어 죽게 만든 사실 등 일본에서의 가족내 살인사건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짐승도 제가 낳은 새끼는 해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오직 엄마품만을 이 세상 전부로 아는 어린 생명을 마구 죽이고 있으니 남에 대한 살인행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 인간증오사상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일본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랭혹한 사회에서 더는 사람답게 살래야 살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것은 『자살문화』로 더욱 성행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의 인터넷 상에는 『자살란』이 생겨나 자살희망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왜 자살하려 하는가에 대해 실로하고 자살할 장소와 방법을 토론한 다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발전』과 『번영』에 대해 떠드는 일본의 진면모, 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모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효자

『내 성적이 학급적으로 1등이라면 아버진 기뻐하시겠지요?』

『암, 그렇다면 막 기뻐서 죽겠다.』

『아버지, 근심마세요. 난 효자니까 아버지를 죽게 하진 않을거예요!』

* * *

사화

아이들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학자였던 리황(1501년-1570년)이 말년에 고향에 내려가 책읽기에 전념하던 어느해 가을이었다.

뜨락을 쓸려고 비자루를 들고나왔던 하인이 놀라며 이제 아이들이 깨여나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를 만류하였다.

그리자 리황은 아이들이 일어나 나오기 전에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집 뜨락에 떨어진 것이라고 마음놓고 먹게 되면 앞으로 남의 물건을 허술히 보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주

시작하였다.

그가 뒤텔안에 떨어진 밤알들을 만나마 주어던졌을 때였다.

새벽에 일어난 리황은 버릇처럼 신선한 새벽바람을 쏘이며 뒤텔을 거닐었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오는데 집뒤텔에 밤알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였다. 자기 집 뒤텔로 들어져 있는 뒤텔의 큰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알들이였던 것이다.

리황은 탑스럽고 먹음직한 밤알들을 주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담너머로 던지기

인의 승인없이 먹었으니 뒤텔 주인을 보기 부끄러울것이요. 그리니 어린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에 티가 앓지 않겠소.』

리황은 그 하인과 함께 떨어진 밤알을 아이들이 깨여나기 전에 모두 주어넘겼다고 한다.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비록 사소한 요소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닐수 없다.

* * *

6월의 절기와 민속

6월의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가 있다.

올해 망종은 양력으로 6월 5일이며 하지는 6월 21일이다.

예로부터 보리는 망종전에 베라는 말이 전해져오고 있다.

그것은 이맘때에 보리장마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데 밀보리를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지어놓은 알곡을 썩일 수 있기 때문이였다.

선조들은 망종이 되기 전에 밀보리가을을 하고 모내기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지날에

가장 길어졌던 밤시간이 그 후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하지날에 가장 짧아지며 이날에 낮시간은 1년중에 제일 길다.

하지는 한해농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선조들은 늦어도 하지전에 모를 내야 그해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수 있다고 여겼다.

6월은 산나물이 많이 자라고 남새를 수확하는 계절이므로 선조들은 이달의 절기에 맞게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망종때에는 가을한 보리로 식초를 만들었고 곱취를 비롯한 여러가지 산나물로 떡과 찬을 만들어먹었다.

하지때에는 쑥떡을 많이 만들어먹었다.

이 시기 처녀애들은 봉선화로 손톱물들이기를 즐겨하였다.

* * *

리징과 그의 작품들

리징(1581년-?)은 조선 봉건왕조 전반기에 이름을 남긴 화가이다.

당시 이름있는 화가였던 리경윤의 서자로 태여난 그는 아버지, 삼촌, 형제들이 모두 그림을 잘 그렸으므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그림그리기를 즐겨하였다.

그가 얼마나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였던지 한 번은 다락에 올라가 그림공부를 하느라 밥먹

는 것도 잊고있었다.

사흘동안이나 찾아다니던 끝에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종아리를 치며 꾸짖었는데 리징은 울면서 떨어지는 눈물로 새를 그려 사람들

을 놀라게 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그후 그는 이름난 화가로 되었으며 도화서(조선봉건왕조때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주부의 벼슬을 받았다.

리징은 산수화, 동물화, 화조화를 잘 그렸는데 그중 검은 비단에 금분으로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여러가지 동물을 섬세하게 그린 금니화가 이름이 났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높은 산과 많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를 광채나는 금분으로 그린 《여름풍경》이다.

이 작품은 다른 금니화들인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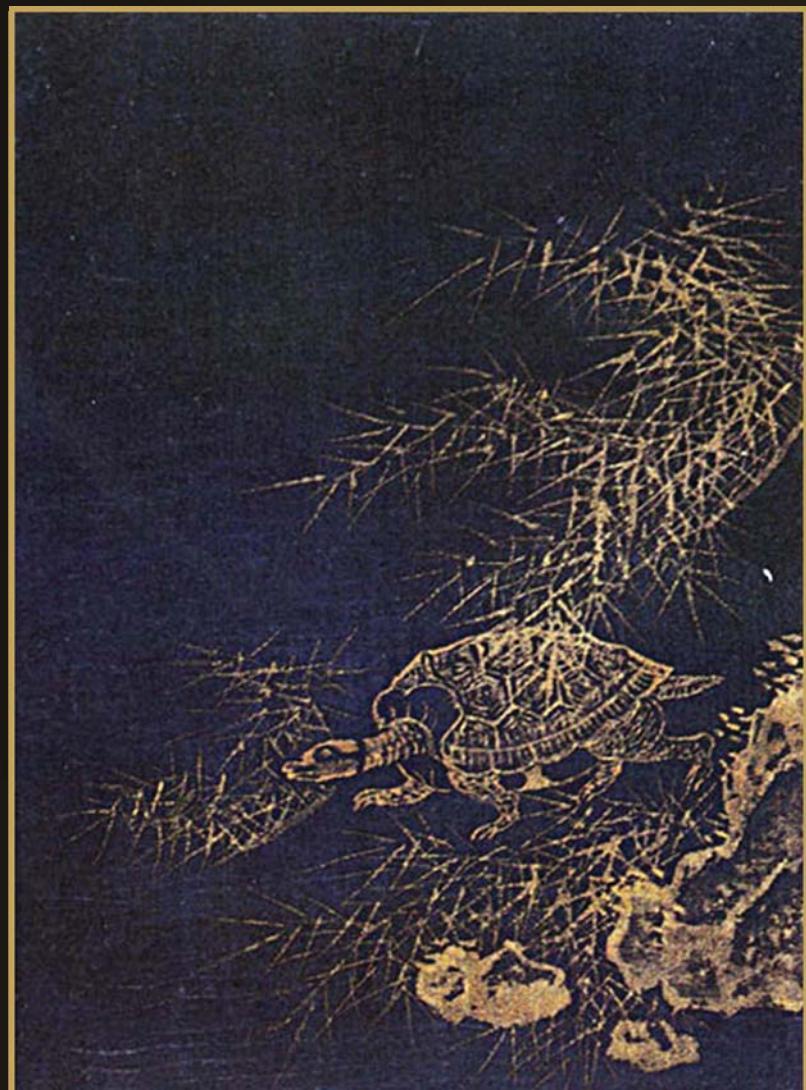
《거부기》, 《봉황새》, 《공작새》, 《독수리》, 《원숭이》 등과 함께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리징은 당대의 사회현실과 인간생활을 반영한 작품보다도 우수한 산수화들과 동물금니화들을 창작함으로써 17세기 조선희화발전에 뛰어한 자욱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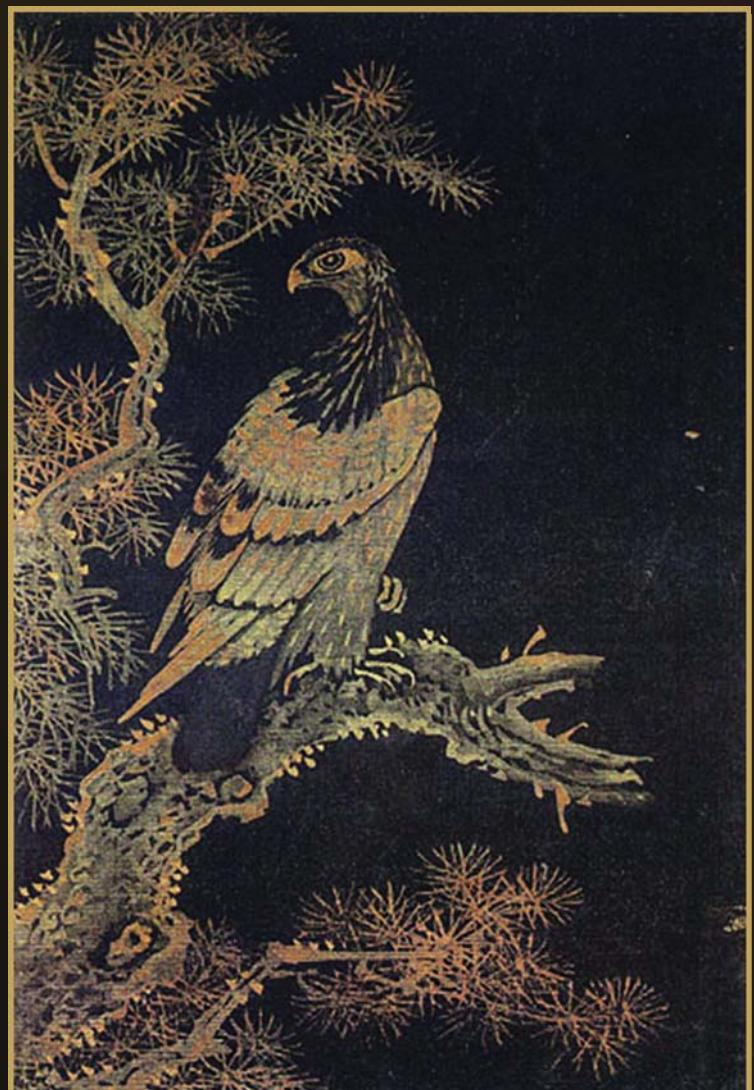
* * *



《공작새》



《거부기》



《독수리》

고려 2대 명의

리상로(1123년-1197년)와 설경성(1237년-1313년)은 고려시기 의술이 능해 2대명의로 불리웠다.

리상로는 12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침구술에 능한 의원이다.

그는 당시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친교관계가 있다고 하여 정배살이를 하게 된 아버지가 청주로 귀양갈 때 따라가 자라며 어떤 중한테서 의술을 배웠다고 한다. 그후 개경으로 올라왔다가 어느 고판의 종처를 침으로 고쳐준것이 동기로 되어 크게 소문이 나게 되었다.

당시 국왕이었던 왕현(의종)도 그에게서 다리병을 고치게 되자 그에게 벼슬까지 하사하였다.

그후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부패무능한 봉건관료배들은 그에게 농민폭동군과 내통했다는 반역죄를 씌워서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정배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부단히련마하였다.

꾸준한 노력으로 침구술을 익혔고 그것을 독특하게 발전시키였다.

그후 봉건관료배들은 저들의 리속을 위하여

리상로를 그곳에 오래 두지 않고 다시 등용하였다.

리상로는 이렇게 뛰어난 침구술로 많은 환자들을 고침으로써 당시에 재능있는 의사로 이름을 날리였다.

설경성은 13세기 후반기-14세기초에 활동한 의원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의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의술을 배웠으며 의원이 된 후 병치료와 의술연구에 노력하였다.

당시 고려의 발전된 림상의술에 정통하였으며 환자치료를 잘하였기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까지 널리 알려진 명의로 되었다. 1285년에 원나라에 초빙되어 당시 그곳에 모인 많은 나라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던 원나라 임금(세조)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고려의학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었다. 그후에도 그는 여러번 원나라에 초빙되어 자기의 뛰어난 의술을 과시하였다. 설경성은 비록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나 자신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줄것을 바라지 않았고 가정살림에도 무관심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환자치료와 의술연구에 전심하였다.

* * *

상식

록화와 건강

록색식물은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사람은 1인당 10m²의 록화면적을 가져야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수림 속에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록화된 환경은 사람의 호흡을 고르롭게 하며 심장부담을 덜어준다.

숲속의 공기에는 음이온이 풍부하다. 음이온은 사람들의 신경계통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면역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신경쇠약, 폐기종 등 질병들을 치료한다.

느릅나무, 은행나무, 봇나무, 측백나무, 소나무 등은 질은 향기와 휙발성물질들을 분비하여 주변의 공기를 정화시킨다.

이밖에 무성한 나무잎들은 떠돌아다니는 많은 연기와 먼지들을 흡

착한다. 수림의 먼지량은 개활지 대 먼지량의 1/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공기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을 흡수하는 것이 나무나 꽃, 풀이다.

록화된 환경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소음도 막아준다. 나무가 없는 도로에서의 소음은 나무가 무성한 도로에서보다 5배나 더 세다고 한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6)

황해남도의 특산 - 옹진김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김을 양식하여왔으며 그 질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갈래김, 큰김, 참김, 긴참김 등 10여종의 김이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서해 옹진만 연안에서 생산되는 참김은 그 질이 좋은것으로 유명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영양가가 높을뿐아니라 맛좋은 김을 식생활에 널리 이용하여왔다. 예로부터 밥을 김에 싸먹으면 눈

이 맑아진다는 말이 전해오는 데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김을 오래동안 식생활에 이용하면서 터득한 경험에 의한것이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김에 비타민A가 많이 포함되어있는것과 관련된다.

김을 이용한 음식들로는 김고추장구이, 김밥, 김국 등 그 가지수가 많으며 빵이나 다른 부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고추장구이는 찹쌀가루에 고추장을 되직하게

풀어 김우에 여러번 바르고 깨가루를 뿌려 말린 다음 적쇠에 구운것이다.

김고추장구이는 옹진지방의 특산음식으로서 손님대접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끼니음식으로 만들어먹기도 한다.

오늘 김생산량이 늘어나고 김가공방법이 발전하는데 따라 김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고주일



조선속담(표리부동)

- 간에 가 불고 엽통에 가 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희익이 되면 체면을 돌보지 않고 이편에 불었다 저편에 불었다 하는 간사한 행위를 이르는 말.

- 고양이 쥐생각

속으로는 해치려는 앙큼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동정하는척 함을 비겨이르는 말.

- 두 걸마를 보다

어느 한쪽이 랑패를 보더라도 불리하지 않도록 두쪽에 다 희망을 걸고 살펴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뜻으로 대세에 따라 행동하는 량면적태도를 이르는 말.

- 들판과 간판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해치고 자기의 리속을 채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동심을 불러오는 줄넘기놀이

우리 조국에는 소녀애들이 줄넘기놀이를 할 때마다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큰 물결 작은 물결
바람이 불면 돌아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두해전 9월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에서 민족옷차림을 하고 줄넘기놀이를 하던 귀여운 어린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와 함께 공연을 관람한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사는 70고령의 김영자동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국에서 아이들의 줄넘기놀이를 보니 지난간 나의 유년시절이 어제恁듯 되새겨져 저도모르게 동심에 젖어듭니다.』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는가봅니

다. 그렇듯 년로한 동포녀성도 아이들의 줄넘기놀이를 보며 어릴적동무들과 함께 고향마을에서 해저무는줄 모르고 뛰어놀던 시절이 못 견디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대대로 이어온 민속놀이의 하나인 줄넘기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줄넘기놀이는 말그대로 고정시켜놓거나 돌리는 줄을 넘는 놀이입니다.

줄넘기가 언제 생겨났는지 그 년대는 명확치 않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1392년-

1910년)의 력사기록들에는 《옛 풍속에 어린이들이 줄의 땅끌을 잡고 뛰어넘으며 노는 민속놀이 가 있는데 천여번까지도 뛰어 넘었다. 이 놀이는 어린이들의 다리힘과 기운을 키워준다. 그 명칭을 <줄넘기>라고 한다.》 고 씌여있습니다. 지난 시기 평안도지방의 소녀들은 고정시킨

줄넘기를 하였는데 이때 고무줄을 리용하였으므로 《고무줄놀이》라고 불렀습니다.

줄넘기는 그에 리용된 줄의 재료와 탄력성에 따라 여러가지 놀이방법들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고정시켜놓고 할수도 있고 돌리며 할수도 있습니다.

고정시킨 줄넘기에 리용되는 줄은 늘었다줄었다 하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돌리는 줄넘기 때에는 두명이 각각 줄의 한끝씩 잡고 원을 그리며 돌리기때문에 줄은 신축성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줄넘기는 놀이에 참가하는 인원수에 따라서도 방법이 여러가지입니다.

혼자서 자기 땅손에 짧은 줄을 한끝씩 쥐고 돌리면서 뛰어 넘는 방법(일명 흰줄운동), 두 명이 긴 줄을 마주 쥐고서서 반원형으로 크게 휘돌릴 때 거기에 여려명이 뛰어들어가 넘는

방법, 한편의 여려명이 고무줄을 팽팽히 늘이고 상대편은 한명씩 그안에 들어가 노래에 맞추어 룰동적으로 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어린이들의 체력단련과 정서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줄넘기놀이를 하며 날렵한 몸동작과 부단한 조약을 하는 과정에 몸매가 교와지고 키도 크게 되며 몸도 튼튼히 단련되게 됩니다.

줄넘기놀이는 노래가 동반되어야 흥취도 있고 재미있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동요라든가 그 시기에 즐겨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줄넘기동작을 수행합니다. 아이들은 놀이의 시작전에 노래의 어느 부분에서 줄을 넘을 때 발동작은 어떻게 하며 몸동작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약속을 먼저 하여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에 문화적소양도 높이게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줄넘기놀이는 자그마한 동리를 벗어나 예술공연무대와 국제교예무대위에서 난도높은 기술동작들을 펼쳐보이는 예술종목의 하나로 발전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이렇게 민속놀이 줄넘기놀이는 로세대동포들에게 동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속에 바로 고향에 대한 사랑, 친척, 친우에 대한 사랑도 함께 담겨져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줄넘기놀이가 새 세대동포들도 자기 조국을 아는 민족의 한 성원이 되도록 이끌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사기자 연 옥



함경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 개심사 -

개심사는 《함북금강》으로 불리우는 칠보산의 내칠보에서도 경치좋기로 이름난 개심대에 위치하고 있다.

발해때인 826년에 세워진 개심사는 1784년에 고쳐지었으며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현재 개심사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쪽 좌우에 심검당과 음향각이 있으며 대웅전 오른쪽에 산신각, 왼쪽에 판음전이 있다.

대웅전앞에 있던 만세루는 1923년 홍수때 무너졌다.

대웅전은 정면 3간, 측면 2간의 겹쳐마합각집이다.

건물의 중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운데간을 좌우측간보다 1m 더 넓게 하면서 네짝문을 달았으며 측간들에는 두짝문을 달았다.

기둥은 약간 배부른기둥이며 그우에 바깥 5포, 안 7포의 두공을 얹었는데 두공형식은 정면과 후면, 측면이 서로 다르다.

심검당은 정면 6간, 측면 3간의 홀쳐마합각집인데 경사진 자연지세에 맞게 기둥높이를 조절하여 지붕의 수평을 보장하였다.

심검당의 정면기둥들도 역시 배부른기둥이고(후면은 네모기둥) 그우에 2익공의 두공을 얹었다.

전반적으로 균형미가 좋고 주위환경과 잘 어울려서 옛 건물의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는 개심사는 우리 인민들의 우수한 재능과 지혜를 엿볼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화재보이다.

* * *





명승-삼일포

삼일포는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리에 있는 호수이다.

삼일포는 예로부터 호수경치에서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관동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으며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 호수경치로 이채를 띠는 곳이다.

삼일포라는 이름 자체도 옛날에 어떤 왕이 하루동안 놀려고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 놀고갔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호수두리에는 수십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으며 그안에 맑은 호수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다. 산우에서 보면 바다가의 호수로 보이고 호수안에서 보면 심산속의 호수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호수에 떠있는듯 한 섬들은 소나무숲과 참대숲이 잘 어울려 마치 한폭의 그림 같다. 그

런가 하면 삼일포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장군대며 호수경치에 끌려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옛 전설들이 깃든 사선정과 무선대, 련꽃바위 같은 명소들도 저마다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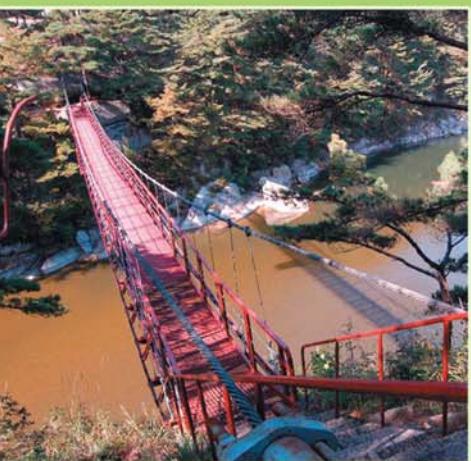
호수의 북서쪽기슭은 백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뒤에는 잔디밭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있다. 호수에는 잉어, 기념어, 화련어를 비롯한 물고기들도 많아 한여름이면 낚시꾼들로 흥성이군 한다.

삼일포에는 단풍관을 비롯한 정각들과 줄다리, 배놀이터 등이 건설되어 배놀이도 할 수 있고 호수주변의 바위산들을 연결한 탐승길을 따라 유람도 할 수 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고성찰대나무림



소바줄다리



연화대와 연화정



금강문

평안북도의 일부 지명들 (2)

평안북도의 지명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한 이 고장사람들의 투쟁의 역사, 애국주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평안북도의 구성시와 넝변군, 의주군 등의 지명이 그려하다.

구성시는 고려시기에 《구주》로 불려왔는데 나라의 안전을 오래동안 담보해주는 고을이라는 뜻에서 지어진것이다.

넝변은 이 지역에 자주 침입하는 외적을 평정함으로써 고을이 편안하고 안정된 북쪽면방이라 하여 부른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의주군의 《의주》라는 말은 《의로운 고장》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의하면 원래 이 고장은 고조선이래로 여려 세력이 엇갈아 다투면서 안정되지 못한 지역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장에 있던 우두머리가 군수물자와 량곡을 바치며 고려정부에 투항해오자 고려 16대왕이었던 예종왕이 기뻐하며 《의로운 고장》이라는 뜻에서 《의주》라고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1216년과 1231년 정주지방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곳 사람들은 우세한 적들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고을을 지켜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이곳을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

는 안정된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정원대도호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정원대도호부는 후에 정주목으로 되였다.

평안북도의 지명에는 외적을 쳐물리치는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운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도 짓들어있다.

묘향산에는 마치도 펄럭이는 기발모양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을 탁기봉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고려의 장군 김취려와 관련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1216년 고려를 침략한 외적들은 의주, 삼주, 창주(창성) 등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뺏탈하였다. 그러나 김취려장군의 부대에 의해 적들은 완전히 격파당하였다.

싸움에서 이긴 그의 부대는 승전고를 울리며 묘향산골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승리의 함성에 화답하여 산발들도 우쭐우쭐 춤추는듯 하였다.

성대한 축하연이 있는 날밤 김취려장군은 흡족한 기분으로 꿈나라에 잠기였다.

꿈에 백발의 로인이 나타나더니 자기는 묘향산의 신선인데 고려군의 승리를 이 산발에 영원히 새겨놓을터이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라는것이였다.

파연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칼날처럼 일직선으로 뻗어있던 산줄기가 마치도 장군기를 앞세운듯 한 기발대렬을 이룬 봉우리로 변한것이였다.

탁기봉은 이때부터 생겨났

으며 그 모양이 장군기를 앞세운 기발대렬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성시에는 향로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의 애국명장 강감찬과 고려의 의로운 딸 설죽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설죽화는 일찌기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슬하에서 고향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함께 무술을 익히며 성장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외적들이 침입하였다.

그때 설죽화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강감찬장군을 찾아갔다. 강감찬장군은 처음에 어린 그를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그의 애국심에 감동되어 마침내 부대에 받아들이였다.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나선 설죽화는 선봉에서 싸우다가 그만 최후를 마치였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설죽화의 최후를 애석해하며 강감찬장군은 말하였다고 한다.

『나라를 목숨으로 지켰거니… 이같은 후손이 있는 한 우리 고려는 어떤 외적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리니. 장하다. 너는 진정 고려의 꽃이요, 이 나라의 딸이노라.』

후세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워 설죽화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하여 그 산을 《향로봉》이라고 불렀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김광철

금령수



금령수는 짧은 시일안에 인체의 면역을 증진시켜 암을 비롯한 난치성질병을 예방하고 피로회복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식품은 개성고려인삼과 령지 그리고 북부고산지대의 약초들에서 첨단기술로 추출한 배당체 및 다당체와 생물활성 물질로 제조되었다.

금령수는 신비한 약리작용을 가진것으로 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주체95(2006)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를 받은 후 식품은 지난 10여년간 국내는 물론 여러 나라들에 항암 및 당뇨병치료제로 등록되었다.

식품은 자연에 네르기개발회사 록양제약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 * *

